

2001년 주요 업무 계획

- 전자산업진흥회
 - I) 본회 중점 사업
(본회 김상근 부회장)
 - II) 주요 업무계획
- 산업자원부
- 정보통신부
- 재정경제부
- 중소기업청
- 과학기술부

○ 전자산업진흥회

I. 2001년도 전자산업진흥회 중점 사업

■ 전자, IT업계에 대한 총력 수출지원과 비전제시 ■

올해 본회의 사업계획으로는 전자, IT산업이 명실상부한 한국의 경제성장, 수출 주도산업인 만큼 무엇보다도 수출역량 극대화를 위한 지원업무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본회는 미국경기의 침체 등으로 당장 영향이 나타나는 PC수출부진 현상들을 통해 현실을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업계 지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IMF사태 이후 최고의 호황을 누렸던 지난해와 달라짐에 따라 수출과 내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본회의 올해 사업계획으로는 크게 수출확대적극지원, 각종협의회 활성화, 회원사서비스강화, 장기적 전자산업 비전 제시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점추진사업으로는 수출증대 및 내수 진작, 부품·소재 산업의 육성, 신 산업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국내의 환경대응 및 규제완화, 회원사 정보서비스 활성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올 경기상황을 고려할 때 당초 800억 달러 규모로 책정한 전자·IT 수출 전망치가 다소 높아 수출 목표치 달성이 어렵게 보이긴 하지만 수출확대에 매진하기 위해 기존에 6개였던 협회주관의 해외전시회 참가수를 10개로 늘려 시행할 예정이며, 수입규제 대응 및 국제협력에 증진할 것입니다.

특히, 상하이에서 열리는 세빗(CeBIT) 아시아, 브라질 컴텍스, 대만 컴퓨텍스 등에 대규모 전시단을 파견하고 오는 5월 처음 개최되는 부산전자전을 국제적 전시회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진흥회가 기존의 전자·IT산업별 협의회를 체계화하고 보다 많은 회원들을 확보해 정책건의 등의 창구로서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306개사였던 회원수를 350개까지 늘려갈 것이며 기존 컴퓨터·음극선관·통신기기 등 10개 협의회 외에 지난해말 새로 조직한 인터넷TV협의회 등을 통해 진흥회가 제조업체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는 단순한 창구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자제조업체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해 나가는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신 산업 인프라 구축 및 제도정비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EC팀을 만들어 전자부품 전자상거래를 촉진하는 등 전자산업계의 경영효율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자거래협회와 함께 전자부품 카탈로그를 만들어 연내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전자업계 전자상거래 인프라 구축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지난달 일본에서 열린 제1회 한일 전자상거래협의회에 EC팀 직원을 파견해 한일 전자부품 카탈로그 표준화를 제안하는 등 수출과 또 다른 차원의 산업계 및 회원사의 국제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본회 내에 새로 설치된 전자산업연구소를 통해 전자산업발전에 필요한 장기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산업경쟁력조사 연구, 국내전자산업의 현안조사연구 등 명실상부한 IT산업계의 중심이자 산업풍향계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올해 내수시장의 위축이 예상되는 만큼 본회는 그 어느 해 보다도 많은 일을 하게 되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21세기 디지털기술혁명을 기반으로 정보산업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자산업의 교역확대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본회 김상근 부회장

II. 주요 업무 계획

1. 2001년 국내외 여건

금년도 세계 전자시장은 전년 대비 8.9% 성장한 1조2천5백억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분야별로는 컴퓨터 및 정보통신분야가 크게 선도해 나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금년도 전자산업 수급전망은 수출은 전년대비 18.7% 증가한 800억불, 내수는 전년대비 16.4% 증가한 76조원으로 전망되고, 부문별로는 산업용기기의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

2. 2001년도 사업목표 및 중점 추진사업

전자산업진흥회는 지식정보사회로의 도약을 선도한다는 방침하에 금년도 사업목표는 수출목표 800억불 달성, 품목별 협의회 활성화, 회원사 서비스 강화, 전자산업발전 장기비전 제시로 정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위해 첫째, 수출증대 및 내수진작, 둘째, 부품·소재산업의 육성 셋째, 신산업 인프라의 구축 및 활성화 넷째, 국내의 환경대응 및 규제완화 다섯째, 회원사에 대한 정보서비스의 활성화를 올해의 5대 중점사업으로 설정, 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한다.

1) 수출 증대 및 내수진작

수출증대를 위해서 전자수출의 80%이상을 차지하는 50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출동향 및 전망조사를 분기별로 분석하고, 부문별·지역별·주요품목별 수출동향을 매월 분석하여 수출현장에서의 애로를 신속히 개선해 나갈 것이다.

또한, 각사의 담당임원 및 부서장 등으로 구성된 품목별 수출협의회를 운영하여 분기별로 휴대폰 등 주요 10대수출품목을 분석하여 업계의 수출애로 해결 및 관련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할 것이다.

금년 10월에 개최되는 한국전자전은 작년보다 62% 증가한 8,700여평 규모로 확대하였고, 정부로부터 2억7천여만원의 지원을 받아 COEX 1층 신관(인도양관), 구관(태평양관), 3층 구관(대서양관)에서 2001년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에 걸쳐 21세기 첨단 전자정보산업국의 기반구축 및 전자산업 교역확대를 통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 최첨기술 및 시장정보 교환으로 신제품 개발 촉진, 우수제품 보급을 통한 국민 문화생활 향상 등의 목적으로 국내·외 홍보를 강화하고 유명인사를 초청하여 세미나 등을 개최할 것이다.

또한, 해외 유명전자전에 한국공동관을 설치하여 고부가가치의 신개발품을 중심으로 운영할 것이다. 미국, EU로부터의 수입규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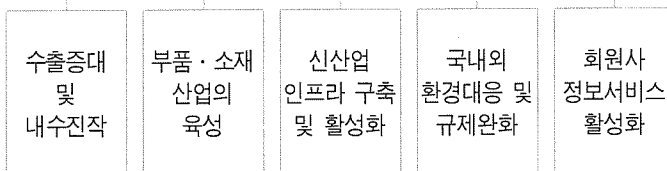
<사업목표 및 5대 중점 추진사업>

사업목표

- 지식정보사회로의 도약을 선도 -

- 수출목표 달성 : 800억불
- 품목별 협의회 활성화
- 회원사 서비스 강화
- 전자산업발전 장기비전 제시

중점 추진사업



〈해외전시회 참가계획〉

구 분	대상품목	시 기	장 소
COMDEX Fall	정보통신	11.12~11.16	미국 라스베가스
MEDICA	전자의료기기	11.21~11.24	독일 뒤셀도르프
CeBIT Asia	정보통신	8.8~8.11	중국 상하이
COMDEX SUCESU-SP Brazil	정보통신	8.28~8.31	브라질 상파울루
IESEC	보완장비	5.21~5.24	영국 버밍햄
MEDIACAST	위성방송기기	5.21~5.23	영국 런던
Electronics Fair	전자부품	10.15~10.18	홍콩
Networld & Interop	통신장비	9.11~9.13	미국 애틀란타
COMPUTEX	정보통신	6.4~6.8	대만

예방하기 위해 본회 현직 고문번호사를 활용,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반덤핑 피소 가능품목의 모니터링 강화, 해외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국제협력 강화, 민관통상대응 체제 구축 등을 통해 통상마찰이 최소화 되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이다.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금년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에 걸쳐 부산 전시컨벤션센터 제2전시회장에서 2,654평규모의 부산디지털전자전을 개최하여 디지털전자제품의 보급확산과 지방 전자산업의 도약기반을 구축하는 등 정보화 사회의 촉진을 선도해 나가며, 신규제품 수요창출을 위해 통신기기 발신자 번호 표시서비스 도입에 대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조업계 입장을 건의하고, 통신사업자의 노후장비 조기교체를 건의하며, 통신장비와 단말기의 연동 원활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제조업계와 서비스사업자간

협력체를 구성할 것이다.

수입금지품목의 모니터링을 통해 덤핑 수입품에 의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며, 산업피해방지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국내시장의 경쟁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디지털TV, DVD, 인터넷 정보가전 등의 내수활성화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디지털 정보가전산업발전포럼을 구성하여 디지털정보가전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수립토록 하며, 동종업계 공동이익사업 개발 및 확대를 위해 컴퓨터산업협의회 등 품목별 협의회사업을 통해, 환경규제 대응, 부품의 표준화 및 공용화, 해외시장 공동개척,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2)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신개발

전자부품 콘테스트를 통한 우리 업계의 개발분위기를 고취시키고, 우수 신개발 전자부품 홍보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며, 대일의존도 개선등을 목적으로 한다.

우수 신개발 전자부품은 한국 전자전에 특별 전시(무료)해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셋트업계의 부품구매계획을 조사해 부품업계의 경영정보로 활용토록 한다.

또, 우리전자산업의 구조적 취약점인 핵심 고정밀 부품의 수입을 국산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전자부품연구원과 공동으로 국내 유망전자부품의 실태를 정밀조사하고, 부품·소재의 수입동향을 분석해 기술개발전략을 수립함과 동시에 시제품분야, 첨단 S/W분야, 사업화분야에 대해 총 335억원의 산업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한다.

3) 신산업 인프라 구축 및 제도정비

정부의 전자상거래 시범사업으로 Road Map을 수립하기 위해 정부시스템 구축 및 활동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전자업계와 연계되어 성공적인 모델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전자수급기업 10개사를 대상으로 추진반을 구성하였다.

이에 초안을 중심으로 추진반의 의견수렴을 정리 보완하여 정부지원금 9억원의 예산으로 위탁개발(일렉트로피아)를 통해 부품정보 DB구축, 다국어 지원, 해외

전자거래 체계를 지원하고 있다.

또, 정보화 조기실현으로 e-business에 신속하게 적응토록 하기위해 B2B 전문솔루션업체 대상으로 IT분과(위)/ IT컨설팅 사업단을 년중으로 구성·운영한다.

국내외 표준 규격 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여 9000여종의 규격서에 대해 회원사가 언제든지 웹상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며, 회원사가 원할 경우 신속한 자료제공이 가능토록 한다.

이외에 전자상거래 표준을 위해 로제타넷위원회 및 한·일전자부품표준화위원회를 운영하여 전자상거래용 전자부품 표준을 아시아권으로 확산하고, 국제형명등록시스템을 구축하여 외국기관 및 국내업체간에 신속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4) 국내외 환경대응 및 규제완화

국내외 환경대응 및 규제완화를 위해서는 먼저 컴퓨터, 통신기기 등의 폐전자제품처리 및 선진국의 환경규제에 대해 신속한 사전대응을 통해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대비한 업체의 사전준비사항을 홍보하고 제조물책임소송 전분쟁조정기구(PL센터) 설립 또는 상상증재원 활용을 검토하여 제조물 책임법 대응 우수업체 사례발표회를 개최한다.

그리고, 선진국(일본 등)의 PL센터운용의 실태조사를 통해 PL센터 설립근거에 대한 법률적 검

토 및 설립방안을 대정부에 건의한다.

안전관리법은 수수료, 기술기준 등의 개정에 따른 업계의 애로를 개선하고, 안전인증 절차 등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업계애로를 개선한다.

소비자보호법은 리콜제도 운용에 따른 업계애로 개선과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에 따른 업계애로 개선 등이다.

특별소비세법은 에어컨(30%), 프로젝션TV(15%), PDP TV(15%)의 특수세율을 인하하고 업계의견을 수렴한다.

인증제도는 변경신고 및 사후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전자과 적합 인증제도 시행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며, 해외 인증 획득시의 국내시험성적서의 인정을 추진 및 지원제도를 개선한다. 또, 정보통신분야의 국제간 상호인정상의 제조업계의 의견을 제출하고 제조자 자기적합성 선언(DOC)제도를 도입 추진하고, 불법 유통기자재에 대한 단속을 강화 추진한다.

이러한 제조물책임법, 안전관리법, 소비자보호법, 특별소비세법, 인증제도 등 각종 규제에 대해 관계기관에의 건의를 통해 업계의 애로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5) 전자산업연구소 운영

금년부터 전자산업연구소를 부설하여 운영한다. 동연구소에서는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발전을 위한 장기비전을 수립하고, 전자산업에의 정책적, 제도적인 지원방

안을 모색하며, 산업경쟁력 등 우리 전자산업이 안고있는 현안들을 조사 연구하여 관계기관 및 업계에 제공한다.

6) 회원사 인터넷 정보서비스 활성화

회원사 중심의 전자산업종합서비스를 위해 전자정보산업 전문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서비스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정보서비스현장 제정을 통해 회원사에 대한 서비스 자세를 확립하고, 최신정보기술을 활용한 전자산업정보망 포털사이트를 체제운영을 활성화하며, 서비스지원을 위한 업무 제휴 협력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사이버 무역정보서비스를 통해 무역실무를 지원하고, 지능형 무역 에이전트 프로그램, 메일링서비스, 인터넷 사이버전자전시회, 가전정보통신산업DB운영, 영문 홈페이지 재편, 전자관련 연구조합의 인터넷 정보제공 환경 지원, 월간 「전자진흥」정보DB 구축 관리 및 인터넷 서비스제공, 전자의료기기 D구축, 「2001년도 정책자금 지원정보」인터넷 홍보등을 통해 회원사에 대한 One Stop 서비스를 구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전자산업통계실태조사를 위해 통계조사대상업체의 확대와 품목분류를 재정비하고, 윈도우즈의 최신기술을 이용한 통계관리시스템을 관리한다.

○ 산업자원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경제 불안심리 해소, 분위기 고양

기업구조조정의 신속한 마무리로 시장신뢰 회복을 위해 대우자동차, 현대전자 등 주요 대기업의 구조조정 마무리와, 과잉설비업종(7개)의 자율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투자수요 진작 등 시장분위기 전환을 위해 IT, BT, 소재 등 산업혁신 주도분야 예산을 조기배정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10%)를 추진할 것이며, 상반기 중 100회 이상 민관합동 경제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업현장의 직접 방문을 통해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사기진작을 추진할 것이다.

2. 21세기 산업비전·발전전략·산업정책 추진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추세로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이를

종합 감안하여 R&D·사업화 투자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시킨 4대 신산업을 선정하였다.

21세기의 신산업중 정보기술(IT)은 IT분야 최대 애로사항인 부품국산화 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고, 기술자립화를 위한 미래형 핵심기술을 집중 개발하여 국제협력을 통해 세계시장을 선점할 것이다.

한편, 전자, 자동차, 조선, 기계, 철강, 석유화학, 섬유 등 7대 주력 전통산업은 IT접목, 브랜드이미지 제고 및 핵심기술 개발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할 것이다.

IT접목으로 세계 일류화를 지향하는 주력 전통산업 중 반도체는 세계 1등 메모리산업의 경쟁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반도체 혁신협력사업」 등 설계 인력 양성 등을 통한 비메모리분야의 간판 사업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디지털가전은 D-TV, LCD 등 세계선도제품의 경쟁력을 유지 및 강화하고 영상, 애니메이션 등

디지털컨텐츠를 제작 및 유통기반을 구축하여 2010년에는 400억 불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강력한 지식·기술 드라이브 전개

범국가적인 산·학·연 공동으로 미래시장을 선도하는 핵심기술을 집중 개발하여 기술혁신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술혁신이 선순환하는 제도 및 기반을 보장하여 선진기술국과의 전략적 제휴 및 신기술 사업화를 확산할 것이다. 이에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지식·기술인력 양성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또한, 국가표준 및 품질의 세계화를 위해 품질혁신 활동 재건을 위한 「국가품질 종합시책」을 수립 추진할 것이고, 지식산업으로서의 디자인과 브랜드의 발전 기반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기술력 제고를 통해 지역별 전략산업 발전전략과 유통·물류시스템의 선진화를 추진할 것이다.

부품·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발전목표 수립 및 새로운 개발 전략을 도입하여 추진할 것이며, 부품·소재특별법 제정을 토대로 범국가적 부품·소재의 발전기반

정보기술(IT)	⇒	Post PC, 디지털기기, 전자상거래
생물산업(BT)	⇒	유전자변형, 세포배양, 생물공정
신소재·극미세기술(NT)	⇒	신금속, 고분자소재, 극세섬유
신에너지·환경(ET)	⇒	태양광, 연료전지, 청정생산

- | | | |
|--------------|---|------------------|
| • 수입대체 위주 | ⇒ | • 수출주도 위주 |
| • 조립기업 중심 | ⇒ | • 부품·소재기업 중심 |
| • 분산·배분지원방식 | ⇒ | • 선택적 집중지원방식 |
| • 사업화 지원(옹자) | ⇒ | • 원천기술개발 지원(출연) |
| • 국내기업 중심 | ⇒ | •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 병행 |

구축하고, 차세대 핵심 부품·소재 개발을 본격 추진하며, 세계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품·소재산업의 전문화·대형화를 유도할 것이다.

이로써 선진 부품·소재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 유치를 전개해나갈 것이다.

정보기술(IT) 접목을 통한 전산업의 e-비즈니스화를 추진하기 위해 범국가적 e-비즈니스전략(e-Business Initiative in Korea)을 추진하여, 산업부문의 B2B 전자상거래 정착을 위해 전자상거래 기반구축을 위한 기술개발과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것이며 해외진출 거점 마련 및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4. 중소·벤처기업의 제도약으로 경제 활성화

통신망·H/W·S/W의 보급과 교육·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의 사내정보화 및 경영개선을 지원하여 2002년까지 1만개 중소기업의 IT화에 의한 경쟁력을 혁신할 것이며, 벤처 지원 제도의 재정비 및 투자를 활성화하여 중소기업

의 지속적인 경영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기술혁신능력의 제고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5. 무역·투자 GI0 대국으로 부상

년간 10%의 수출증가 및 연간 100억불 흑자를 유지하면서 2010년 세계 10위 이내의 교역국으로 부상할 것이다. (2001년 전망 : 수출 1,910억불, 무역흑자 100억불) 외국인투자의 GDP비중을 현재 9% 수준에서 2010년까지 20%(99년 영국) 수준으로 제고될 것이다.

- 2001년에도 150억불 규모의 외국인투자유치
- 주요 유치대상국 : 일본(부품·소재기업), 유럽(기계업체 등)

6. 에너지소비수준에 상응한 시스템 혁신

세계 10위 에너지소비국으로서의 지위에 상응하도록 에너지수급시스템을 전면 혁신해야 할 것이다. 이에 에너지시장에 경쟁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구축하여, 산

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에너지저소비형으로 경제·사회구조를 전환하여 남북한·동북아를 포괄하는 대륙형 에너지수급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또 기후변화협약, 자원확보 경쟁심화에 따른 국제환경 규제 및 에너지시장 교란에 흔들리지 않는 에너지 수급구조를 정착해 나갈 것이다.

7. 한반도 중심의 새로운 산업 지도 창조

한반도 전체를 포괄하는 산업구조조정 및 재배치를 통해 민족경제의 균형발전과 「한반도 경제시대」를 실현할 것이며, 한반도의 지경학적 위치를 활용하여 동아시아 협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실물경제의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와 경제단체가 앞장서서 시장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조기에 제거하고, 다시 뛰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과 투자에 총력을 경주하는 비상근무체제로 돌입할 것이다.

특히, 10년 앞을 내다보는 새로운 산업비전과 발전전략을 체계화하여 지식·기술·벤처 중심의 강력한 드라이브로 1인당 GDP 3만불대의 「부국」건설을 위한 기초를 확립해 나갈 것이며 나아가 남북간의 실질적인 경제협력 확대와 동북아 신물류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한반도 축을 형성하고 중국, 일본등과 「선린」으로 동북아 경제권 형성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 정보통신부

I. 지식정보기반 활용 촉진

1. 디지털정부 구현 촉진

디지털정부에 필요한 핵심과제를 중점 지원(정보화 촉진기금 860억원)해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행정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인터넷 확산에 따른 지식정보사회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2. 민간정보화 지속 추진

중소기업과 의료·교통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서비스 분야 정보화를 촉진해 사회비용을 절감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이를 위해 온라인서비스임대사업(ASP)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의약품 유통 전산화,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전자서류교환(EDI)을 확산하고 인터넷으로 지리정보시스템(GIS), 지능형도로시스템(ITS) 정보를 제공한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전자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형 전자화폐 등 전자지불

체계를 마련하고 전자서명제도를 활성화해 내년까지 1,000만명의 전자서명 이용자를 확보한다.

3. 지식정보기반 확충과 정보격차 해소

초고속망고도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초고속기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수십Giga급 → 2005년 수십Tera급)하고 전체가구의 28%(400만)에 보급되어 있는 고속인터넷을 올해 말까지 600만 가구에, 내년까지 전체 가구의 60%인 850만 가구에 보급한다.

농어촌 등 낙후지역 초고속가입자망 구축비용을 용자지원(1,500억원)하고, 주부·장애인·노인 등 정보화 취약계층 400만 명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한다. 농어촌지역의 우체국, 읍·면동사무소 등에 정보화 교육장과 475개의 인터넷 이용시설을 설치한다.

4. 정보시설의 보호 및 건전한 사이버문화 환경 조성

사이버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하여 정보보호대책을 수립한다.

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

임을 강화하고, 자살·폭발물제조와 같은 반사회적 사이트에 대한 기술적·제도적 대응방안을 마련, 안심하고 즐겁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5. 국가간 정보화 정책 협력 강화

정상회담에서 제시된 아시아와 유럽의 초고속 연구단을 직접 연결하는 트랜스유라시아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식과 정보교류를 확대하고 개도국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IT인력 초청연수(300명), 청년 인터넷봉사단 파견(150명) 등 국가간 정보화 정책 협력도 강화한다.

II. IT산업 적극 육성

1. IT전문인력 공급기반 확충

국내 IT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해외 수요에 대처 하기 위해 2005년까지 20만명의 전문인력을 추가로 양성한다.

우수 민간 학원을 디지털 전문 교육센터로 지정·운영(50개소)하고 12,000명의 대학 정원을 증원하는 등 올해 31,500명의 IT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IT기업·연

구소에 근무하는 박사학위 소지자를 대학의 겸임교수로 활용하고 해외 우수인력(200명)도 유치한다.

2. 세계시장을 지향한 기술개발과 표준화

국가간 기술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IT분야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7,358억원)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초고속망 장비를 국산 개발 및 산업화 촉진한다.

휴대폰, 박막액정표시장치 등 수출주력 상품의 핵심부품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4세대 이동통신, 광인터넷, 정보가전 등 차세대 전략기술도 적극적으로 집중 개발한다.

3. IT 신산업 육성 환경 조성

신기술개발과 창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IT전문투자조합(1,000억원) 결성, 인터넷기업 전용펀드(150억원) 조성 등을 통해 자금·경영 어려움을 덜어준다.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수요자 구매자금 융자, 품질인증제 및 사업능력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수출선의 다변화와 수출상품의 다각화로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 올해 IT분야 수출 580억불, 무역수지 흑자 160억불을 달성한다.

Ⅲ. 정보통신서비스 경쟁력 강화

1. 정보통신서비스 경쟁력 제고

통신사업의 경쟁환경과 기술변화를 감안해 새로운 경쟁 정책과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 국내 통신사업 구도를 3개 유·무선 종합통신사업자 그룹으로 개편을 유도한다.

3월까지 IMT-2000 서비스의 동시 사업자를 선정하고, 25세대 이동통신서비스를 조기에 보급해 새로운 무선인터넷을 활성화한다.

한국통신 민영화 계획을 재검토해 올 상반기에 외국인소유 한도인 49%를 해외에 전량 매각하고 하반기부터 나머지 정부지분의 국내매각을 다시 추진, 내년 상반기까지는 한국통신 민영화를 차질없이 완료한다.

2. 공정경쟁 환경 조성

통신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발신번호표시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지상파 디지털 TV와 위성방송을 실시해 국민의 통신·방송 편익을 높인다.

3. 정보통신분야 남북협력사업 발굴

남북한 교류와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산가족 영상전

화 만남, 개성공단 통신망 구축, 통신서비스 및 기기·S/W의 남북간 표준화를 위한 민간중심 기술협의기구 발족 방안 등을 상호 협의해 추진한다.

Ⅳ. 세계 일류 우정기업 육성

1. 우정사업 경영체질 개선

우정사업본부의 조직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기업자원 관리시스템(ERP)·경제적 부가가치 평가제도(EVA) 등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한다. 정보기술(IT)이 융합된 인터넷 우체국, 인터넷 बैं킹 등 새로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 일류 우정기업으로 육성한다.

지난 3년간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하고 인터넷을 폭발적으로 확산시키는 등 지식정보사회의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이제 21세기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올해에는, 정부와 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여 우리 사회 전반의 운영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IT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새로운 고용의 창출과 전통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지원하고 국내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우리나라를 21세기 지식정보강국 e-KOREA로 건설하는데 최선을 기울일 것이다.

재정경제부

I. 2001년 경제운용방향

2001년 경제정책의 목표는 시장경제시스템을 기반으로 경제활력을 회복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21세기 선진경제 실현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에 2001년 경제운용의 3대 기본방향으로 시장경제시스템 작동, 성장잠재력 제고와 경쟁력 강화, 서민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들 수 있다.

II. 2001년 재정경제부 중점 추진과제

1. 시장경제시스템 작동

1) 상시개혁시스템 구축

금년 2월까지 4대부문(기업, 금융, 공공, 노동) 구조개혁의 기본틀을 완성하고 앞으로는 M&A시장을 활성화하고, 부실기업에 대한 시장의 사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유도하여 금융부실방지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경영관행과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소프트웨어 개혁등 시장시스템에 의한 상시개혁을 추진한다.

2) 자금시장의 정상화와 투명·공정경쟁 확산

구조개혁 효과가 가시화될 때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확충과 대출채권 담보부증권 활성화 등을 통해 은행대출의 확대를 유도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 유지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선단식 경영관행을 근절하고, 독과점 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시장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공정거래 행동규범을 제정시행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촉진한다.

3) 금융관련 3대제도의 안정적 정착

예금부분보장제, 2단계 외환자유화,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의 순조로운 정착에 만전 금년부터 시행되는 예금 부분보장제도도 당초 우려와 달리 자금시장에 큰 영향없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제2단계 외환자유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동시에 시행됨에 따라 국내자본의 급격한 해외유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으나 아직까지 특이 동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거액의 외화자금의 단기간

에 유출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2. 성장잠재력 제고와 경쟁력 강화

1) 지식정보화 확충과 신산업·벤처투자 지원

지식정보화를 위한 정보인프라의 확충과 인력개발을 확대하고, IT·BT 등 신산업, 벤처기업, 부품소재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2) 전통산업의 IT화 및 설비투자·수출 촉진

기존의 B2B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전자상거래 지원센터를 활성화하는 등 전통산업의 IT화를 촉진하여 「우리경제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고 설비·기술개발 투자와 신용보증기관의 무역금융 신용보증규모 확대등 수출촉진을 지원한다.

3. 서민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1) 물가안정과 고용창출

소비자물가를 연평균 3%대에

서 안정시켜 서민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원활한 구조조정을 뒷받침한다. 경기의 급격한 침체방지를 위한 제한적 경기조절정책의 추진 및 주택개발사업 추진, 신산업 육성등을 통해 경제연착륙을 도모하고 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2003년까지 200만개 창출)한다.

2) 서민생활 안정과 분배개선

그간 확충된 사회안전망의 형평성·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실업자 직업훈련을 효율화하고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여 인력이 부족한 IT부문의 취업지원 등 적극적으로 실업대책을 추진하고 변칙적 상속·증여세 회피방지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세제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3) 지방경제 활성화

금년 중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45만호 건설을 추진하고있는 건설업과 도시계획 변경절차의 간소화 등 행정지원으로 재래상권의 침체 등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방경제 활성화 시책을 다각

적으로 추진한다.

4. 깨끗하고 신뢰받는 경제행정

1) 규제개혁과 「전자재경부」 구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경부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행정정보를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등 「전자재경부(e-Mofe)」를 구현한다.

2)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정책의 일관성·책임성 제고

복식부기 회계도입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조기결산체제 기반구축 등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신뢰를 회복한다.

5. 대외환경에의 능동적 대응

대외지급능력 확보, 국가신인도 제고, 외환시장 안정 등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여 대외부문의 안정을 유지하며, 한·일, 한·미 투자협정 및 칠레와의 FTA체결

을 추진하는 등 대외 통상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남북경협을 내실있게 추진한다.

현재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정도와 원칙을 견지하면서 중장기적인 비전하에 다른 경제부처와 팀워크 이루어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국민들과 약속한 개혁과제를 확고히 추진하고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여 「시장경제 시스템」과 「규율」을 정착시켜나가는 한편 정책추진에 있어 「자율」과 「책임」의 원칙, 「민주성」과 「투명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감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 나갈 것이다.

이와함께 철저한 현장점검과 국민을 찾아가는 경제행정을 수행함으로써 국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고 함께 어려움을 감내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며, 상시개혁시스템이 구축되고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때 올 하반기부터 우리경제는 5~6%수준의 적정성장률로 복귀하고 금년은 「시장시스템 확립으로 새로운 도약」을 이룩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중 소 기 업 정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중소기업의 IT화 추진

지식정보화시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정보화 능력 제고 가 시급하며, 중소제조업에 IT기술을 접목시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추진이 중요하다.

정책방향으로는 2002년까지 1만개 중소기업의 IT화와 경영개선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을 제고하며, 업종별 조합, 모기업, 벤처기업 등 민·관 지원 협력체제를 구성하여 중소기업 밀집지역등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한다.

1) 중소기업의 IT화 추진방향

전사적경영자원정보시스템(ERP) 보급을 통해 사내정보화를 적극 추진하며, 금년 4천개 기업을 지원하고, 2002년까지 1만개 기업으로 확대한다.

중업원수는 20인이상 중소기업(약 8만개)을 주 대상으로 개별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에 맞는 눈높이식 지원을 하며,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민·관협력체제를 구축한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요창출로 IT산업 육성과 IT인력의 고용촉진 효과를 볼 수 있다.

2) 단계별 중소기업의 IT화 추진계획

1단계 도입단계로 소규모 중소기업의 IT화 촉진하고 중소기업 정보화 마인드 제고하며, 중소기업의 정보화 인큐베이터사업 추진한다.

2단계 업무효율화단계로는 기본형 ERP보급을 통한 IT화 지원하고, 정보시스템 진단 및 IT화를 지원하며 모기업 협력중소기업의 IT화를 지원한다.

3단계 업무고도화·확산단계는 경영 및 생산자원의 IT화를 지원하고, 지역별 중소기업 및 업종별 중소기업의 IT화를 확산한다.

2.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의 집중 육성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향후 5

년간 OECD 평균수준인 중소 제조업체의 10%(8,000개사)로 확대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체계로는 기술경쟁력평가를 통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기술수준별로 분류하여 업체별 진단을 실시하여 세부지원계획을 마련하며, 지원계획에 따라 컨설팅, 기술개발, 사업화 등 기술지원사업을 종합 연계지원하여 기술수준을 단계별로 향상시킨다.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체제 정비

중소기업기술혁신을 위한 법·제도를 확립하고 기술혁신 지원기관의 네트워크를 구축 및 국내·외 기업간 기술협력을 강화한다.

3) 산·학·관 협력을 통한 기술혁신역량 강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KOSBIR) 개선을 위해 산·학·연 컨소시엄등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효율화하며, 국내·외 원천기술의 중소기업 이전·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지도 및 기술인력 양성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4) 기술구조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기술개발 추진

부품·소재 생산자인 중소기업과 수요자인 대기업간 공동기술개발을 촉진하여 부품·소재 전문 중소기업을 육성한다.

이를위해 기술개발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전략지원과제를 발굴·지원하며, 기술개발 평가·관리체제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3. 벤처기업의 내실있는 성장 기반 조성

1) 벤처투자 분위기 진작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재정자금 1,500억원을 투입하고, 민관 공동으로 1조원의 벤처투자 재원을 마련하며,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창투사 및 창투자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산을 담보로 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시범 발행한다.

2)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

중소·벤처 창업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창업지원자금을 확대하고 성과분석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부실대출을 최소화한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 창업박람회 개최로 창업붐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창업동아리, 창업경연대회, 창업강좌 등으로 내실화한다.

또한, 창업보육기능을 강화하여 창업보육기능의 내실화를 병행 추진하며, 창업 보육센터 post-BI 벤처기업을 지원한다.

3) 벤처기업의 지방확산 및 해외진출 지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을 통한 지방 벤처기업의 지원을 강화하고 민·관합동의 「벤처기업 세계화지원단」을 중심으로 해외 진출의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4) 벤처기업의 건전성 제고 및 수요기반 확충

R&D 비중의 업종별 다양화 등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선 및 건전성을 제고하고 벤처캐피탈 관리 강화 및 중소기업과 벤처기업과의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한다.

4.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경영 안정 지원 강화

1) 건실한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

2조 2천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적기 공급하여 부분보증제 확대 등을 통한 신용보증지원을 확대하고 자산유동화증권(ABS) 등 직접금융 활성화 및 금융자금의 활용을 촉진하여 어음거래기업의 피해방지를 위한 어음보험의 지

속지원 등 금융시장을 보완하여 안전망을 운영한다.

2)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촉진 및 건전성 강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구조개선사업의 확대 및 재정자금 출자를 통해 2,000억원 규모의 구조조정 전용펀드를 조성하며, 정책자금 수혜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한다.

3) 수요에 부응하는인력지원 추진

연수원의 추가건립 등 외국 전문인력 도입 및 중소기업 기술자 해외파견연수 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인 산업연수제도의 정착화 및 중소기업의 구인·구직기회를 확대한다.

4) 기업간 공정경쟁 여건 조성

대·중소기업간 협력분위기 확산 및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등을 통한 거래질서 확립하고, 중소기업 직접보호제도의 점진적 축소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정비 및 기능을 강화한다.

5. 중소기업 수출 및 내수 지원 확대

1) 중소기업의 수출저변 확충

『중소기업 수출진흥 중장기 계

획』을 수립하고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2)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능력 제고

해외 틈새시장 개척 지원 및 인터넷 중소기업관을 통한 사이버무역 지원을 강화한다.

3) 중소기업제품 내수기반 확충

37조원 규모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 및 연간 구매계획의 70%이상 상반기 조기 구매를 추진하고, 월드컵에 특수대비하여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개발지원을 강화하며, 중소기업 제품 판매수단 다양화 및 홍보를 강화한다.

6. 소상공인 등 지원강화로 산업저변 확충

1) 소상공인 및 여성기업 지원 확대

소상공인의 창업 활성화 및 경영지원을 강화하고 여성창업보육센터를 추가설치하여 창업강좌 및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여성기업의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2) 지방중소기업 지원 효율화 추진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운영체제를 개선하고 지역특화품목 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자금 지원으로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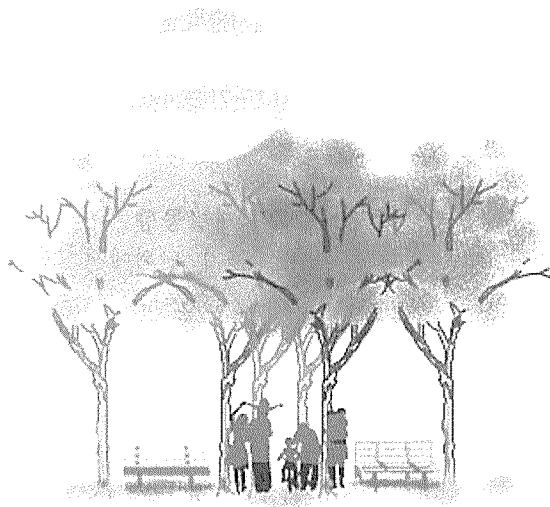
7. 남북경협 활성화 및 국제협력 증진

1) 남북경협 추진 중소기업 지원확대

북한진출 중소기업에 현지 설비투자·경영자금 지원(업체당 20억원 한도) 및 기술전문인력을 파견하고 기술지도를 추진한다.

2) 중소기업 국제협력 활성화

미국 및 러시아와의 중소기업 회의를 개최하여 양국 중소기업 간 무역, 기술 및 산업협력을 촉진하며, 지역 및 국제기구를 통한 중소기업의 협력을 강화한다.



○ 과학기술부

2001년 중점추진과제

2001년의 기본방향은 지식기반·차세대 주력기술의 선택·집중개발과 국민을 위한 창조·생산적인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체제를 구축, 과학기술혁신 역량 총결집이다.

1. B-Korea 건설

1) 바이오혁명의 전망

의료·약품, 농업, 에너지, 환경, 해양 등 무한한 응용으로 동시다발적인 급진적 연구개발과, 정보기술을 대신할 경제성장의 엔진으로 등장하고 있다.

타임지나 비즈니스위크지는 향후 100년은 '바이오테크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2) 우리의 현황

80년대부터 기초연구를 착수하였고, 최근 바이오벤처 붐이 형성되고 있다.

3) B-KOREA 건설 : 2001년을 "생명공학의 해"로 선포

2010년까지 세계 7위권에 진입

(현재 14위)하는 것과 21세기 주력 성장산업으로 전략적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본방향으로는 우선 국과위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유전체학, 단백질체학(Proteomics), 생물정보학(Bioinformatics)을 집중 육성할 것이며, 한국의 난치병 등 틈새기술 개발에 주력할 것이다.

또한, 생물정보학 등 취약분야를 집중 양성하고 인력정보DB를 구축하여 범국가적으로 활용할 것이며, 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통해 의견수렴후 2001년중 법제화할 것이고,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정을 완료할 것이다.

2. 첨단·전통산업기술의 균형발전

1) 미래선도형 나노기술개발 본격 도전

- 나노기술(NT) 개발동향

물질을 원자·분자 단위에서 조작(정보·전자, 재료, 의료, 에너지, 국방, 농업 등 활용한계를 상상하기 곤란)하며, 과학기술과 산업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다.

(세계반도체시장 : 1999년 1,691억불 → 2010년 1조불 예상)

- 나노기술의 체계적 육성

나노기술의 기본목표로는 2010년까지 테라급(기존 반도체 저장용량의 1,000배) 정보처리 기술력의 확보와 미래의 전략분야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2)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술개발

중장기적인 목표로 2005년에는 우리가 개발한 위성을 우리의 발사체로 우리 땅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100kg급 소형위성의 독자개발과 소형위성 발사체 개발 및 우주센터를 건설하는 것이며, 2015년에는 국내 우주산업을 세계 10위권에 진입하여 위성 20기의 개발로 실용위성의 개발능력을 확보하고 액체추진 우주발사체를 독자개발하여 자력으로 발사하는 것이다.

3) 전통산업의 지식기반산업화

IT, 감성공학기술 등을 전통산업에 접목시켜서 기술개발을 하고 지역특화 전통기술에 BT, 첨단 생산기술을 접목시킨다.

4)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장기적인 대체에너지를 개발하

고 에너지의 절약을 위해 CO2저감기술, 초전도이용 전력기기의 효율개선기술 등을 개발한다.

3. 젊은 고급두뇌 수혈

1) 신진 우수인력 활용 확대

외국 과학기술자 「Science Card 제」를 도입하여 우수 외국연구원 (Post-Doc. 포함)을 유치하고 활용도를 연구기관 평가에 반영하여 1999년에는 30대의 연구인력이 63천명이었으나 2005년에는 80천명으로 우수인력을 확대할 것이다. 또한 창의성이 풍부한 연구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2) 과학영재 육성

과학영재교육센터를 지원 확대하여 전국15개 센터에서 초·중등생 2,300여명에게 과학영재 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소」를 통해 영재 판별기법, 교재,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것이다.

무시험전형 확대로 과학고 학생의 조기진학을 유도하고, 국제 올림피아드 수상자 등의 지속적인 과학능력 개발에 힘쓸 것이다.

3) 연구개발인력의 원활한 수급

인력양성에 수급원리를 도입하여 대학학과 및 정원의 자율 조절 등으로 불균형을 해소하고 박사급 연구개발인력의 유동성을

촉진하여 이공계 석·박사 인턴연구원을 활용토록 할 것이다.

4. 국민과 함께 하는 과학기술 전개

1) 과학기술 문화운동 확산과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대중매체를 활용한 과학문화를 창달하고 과학문화 프로그램 및 시설을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과학기술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한다.

2) 수요중심의 기상 서비스 구현

국민의 상생 기상정보로 욕구 충족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기상감시체계 입체화와 예보기술 향상으로 재해예방지원을 강화하며, 기상인력 양성을 통한 전문성을 보강한다.

3) 대덕연구단지 지식산업 단지화

대덕밸리 선포(2000. 9)의 차질 없는 후속조치로 정보통신, 생명공학 관련 벤처기업의 매카로 육성하며, 기기제작/수리, 구매/판매 등의 업무는 아웃소싱(Outsourcing)하여 연구인력 중심의 연구소로 탈바꿈 할 것이다.

4) 남북 과학기술협력 기반 구축

중장기적으로 기상협력, 남북 과학표준 제정, 자생식물 활용,

환경·생태계보전 공동연구 등 상호보완적 협력과 「남북과학기술 교류·협력 실무협의회」를 설치 추진한다.

5. 원자력 기술개발 및 안전성 강화

1) 원자력 G5 진입을 위한 기술 개발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 등으로 비발전분야를 육성하며, 「제2차원자력진흥종합계획(2002~2006년)」을 수립할 것이다.

2) 국민이 안심하는 원자력 구현

원자력안전체제를 강화하고 국가차원의 방사능방재 및 비상진료체제를 확립하며, 대북 경수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관련 조 직을 보강한다.

6. 21세기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시행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025년 과학기술발전장기비전」의 제1단계(2002~2006년) 목표를 구현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며, 미래유망기술에 대한 수요와 개발능력지도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의 경제·사회·윤리적 영향에 대한 종합분석을 통해 금년중 기술영향평가에 대하여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